



지성
창조
봉사

한라초추

T H E H A L L A T I M E S

발행인:김성훈 주간:정무상 편집장:강미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전화: (064) 741-7552

2020년 06월 22일 제214호

“날마다 살아도 모든게 신기하던데 좋은게 한두가지가 아니야 이토록 다 좋은데...”

-창작오페라블랙리코더 OST 中

눈뜨면 매일 마주하는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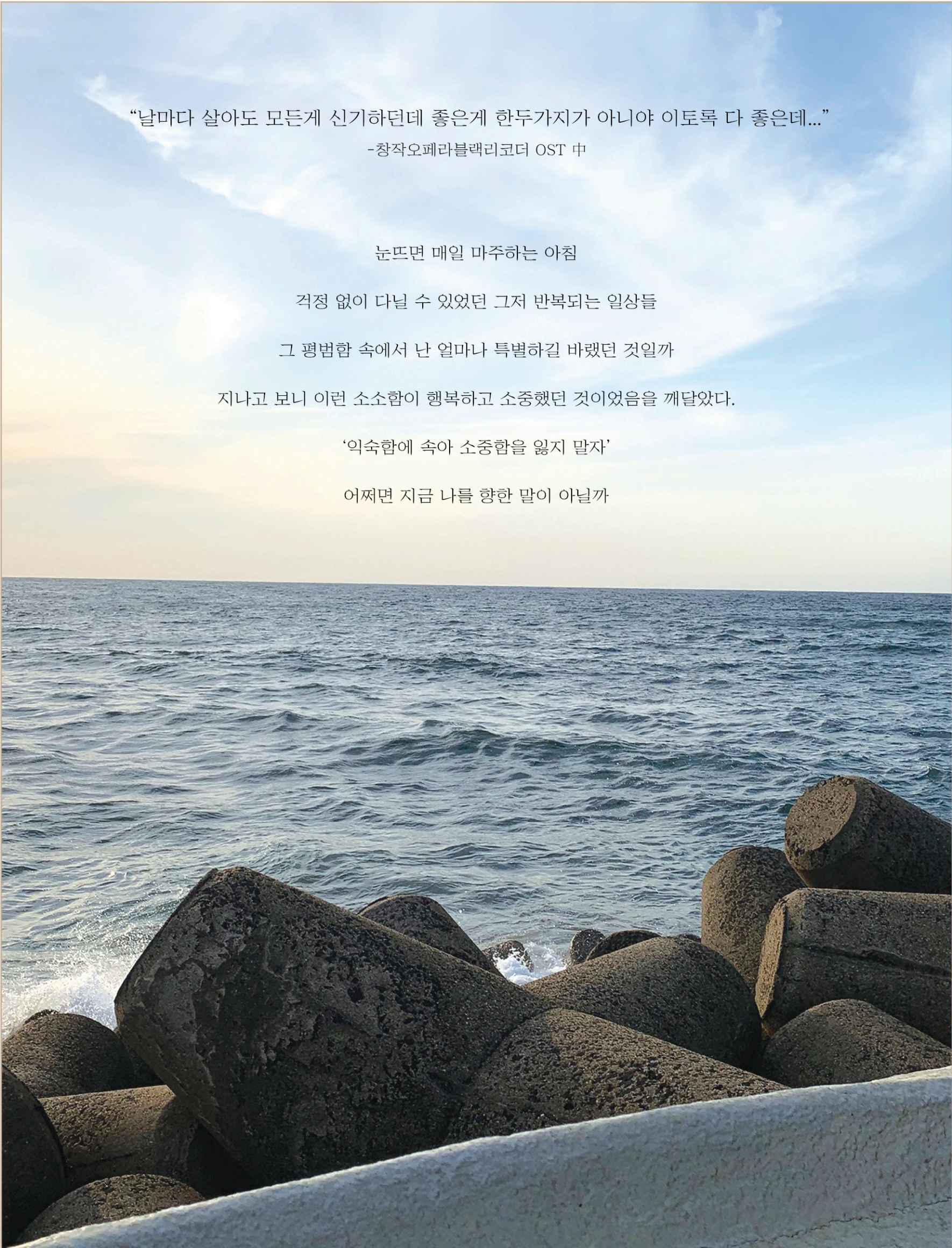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그저 반복되는 일상들

그 평범함 속에서 난 얼마나 특별하길 바랬던 것일까

지나고 보니 이런 소소함이 행복하고 소중했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어쩌면 지금 나를 향한 말이 아닐까



사이버 강의 아직도 현재 진행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한 온라인 수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 새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하얀 쥐의 해’를 맞아 행복이 가득해야 했던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뒤덮여 현재 5월까지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했다.

이번 해 2월 크게 확산 전파되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이는 행사 및 개강, 개강을 연기 혹은 취소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제주 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은 학위수여식, 입학식을 취소하고 3월 2일이었던 개강 날짜는 16일로 미뤘다. 하지만 좀처럼 코로나바이러스는 줄어들지 않아 이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될 때까지 대면 수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전면 온라인수업은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수업 방식이었고 이에 많은 학생들이 사이트 접속 시 서버가 다운되어 오류가 빈번했고 과제 제출이나 비대면 조별 과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시행착오를 지나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도 있다. 이에 대해 제주 한라대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1.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 길어지고 있는 사이버 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학사 일정에 대해 생략되거나 축소되어 아쉬운 행사가 있다면 어떤 일정인가요?	3.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이나 한라대학교 학우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이버 강의라서 교수님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없는 게 불편하다. 하지만 교수님과 조교님께서 그만큼 더욱 신경 써줘서 감사할 따름이다. - 국제관광호텔학부 강00 -	이번에 2학년이 되면서 나이팅게일선서식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미뤄져서 많이 아쉽다. - 간호학부 고00 -	공지를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공지나 범위, 과제 대체 여부 등 너무 혼란스러운 게 많았다. 그래도 학교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다. - 정보기술 학부 오00 -
지금 애매하게 개강하는 것 보다 차라리 1학기 전체 사이버 강의가 낫다고 생각한다.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다. 그렇지만 시험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과제의 점수 기준도 모호하고 컨닝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 정보기술 학부 오00 -	아쉬운 행사 일정은 O.T 인 것 같다. 동기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선배들, 조차 강의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 생겨 너무 아쉽다. 또한 벌써 개강한 지 2개월이 되는데 아직 학교 구조도 잘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안타깝다. - 간호학부 금00 -	많은 언론매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한다. 우리 제주한라대학교도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 국제관광호텔학부 박00 -
대부분의 수업이 실기로 이루어지는 학과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이버 강의의 이론 수업이 한계가 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국제관광호텔학부 박00 -	가장 아쉬운 건 아무래도 학과의 MT 행사이다. 학과의 새 얼굴인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동기와 후배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 레저스포츠과 박00 -	대학 선배언니, 오빠들이랑 동기들 보고 싶는데 오랫동안 못봐서 많이 보고 싶다. 우리 모두 파이팅해서 코로나 이겨내고 학교에서 밝은 얼굴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모두 몸 건강히 지내세요! - 예술학부 이00 -

<정기자 김소현>

제주한라대학교를 소개합니다.



2020년 제주한라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은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잠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수업이 아닌 사이버 강의로 대체 되어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를 잠시 접어두게 됐다. 캠퍼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새내기들을 위해 제주 한라대학교의 캠퍼스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제주한라대학교 캠퍼스 안내도

예관

예관 1층에는 건설관리본부, 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매체개발센터, 취창업지원센터(Job카페)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물리치료과와 응급치료과가 자리를 잡고 있다. 4층에는 도서관이 있다.

금호세계교육관, 금호미래관

금호세계교육관은 A,B동으로 나뉜다. A동에는 한라컨벤션센터, 카페38, 더커먼스, 호텔조리과, 호텔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가 있고, B동에는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국제경영학과, 관광경영과, 관광중국어과가 있다.

금호미래관에는 1층부터 6층까지 레저스포츠과, 사회복지학과, 복지행정과, 보건행정과, 사회복지과, 뷰티아트과, 한라·스토니브룩 응급의료교육원이 있다.

금호관

정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건물은 금호관이다. 금호관 1층에는 입학홍보처, 교무처, 서무팀, 행정지원팀, 학생복지처, 학생상담센터, 예비군중대, 교환실, 교육육역량혁신센터가 있으며, 2층에는 산학협력단/산학협력처와 정보전산원이 있다. 3층에는 기획처, 부속실, 이사장실, 총장실, 경리부가 있다.

인관, 의관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대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천하는 동시에 문화의식과 지적 수준을 높여 가정과 직장의 실생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며 성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의관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며, 후문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눈 앞에 보이는 위치에 있다.

지관, 신관

지관은 A,B,C동으로 나뉘며 A동에는 임상병리과, B동에는 작업치료과와 방사선과, C동에는 마사학과와 마산업자원학과가 있다.

신관에는 컴퓨터정보과, 컴퓨터멀티미디어과, 지능형시스템공학과가 있다.

그 외

한라아트홀 지하에는 음악과가 있고, 2층에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신문사가 자리 잡고 있다. 하이테크센터 2층에는 건축디자인과, 3층에는 산업디자인학과와 예술학부, 4층에는 방송영상센터가 있다. 부설유치원에 유아교육과가 있다.

캠퍼스 안내도와 위에 소개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나중에 학교에 나와 학과건물을 찾을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가올 캠퍼스 생활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
<수습기자 강서경>

국제화를 향한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는 국내·해외 취업에 강한 대학, 전문인 양성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대학,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 교육 대학, 학생을 위한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춘 대학, 장학금·복지 혜택이 많은 대학이라는 다섯가지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2-3-4년제 탄력적 학사학위 제도를 운용하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 학부를 갖추고 있다. 총 30개의 학과 및 7개의 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교의 학훈인 지성, 창조, 봉사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한다. 7개의 학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간호학부	국제관광호텔학부	정보기술/건축학부
- 간호학과 (4년제) 도내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전문의료기관과 연계된 실무 중심교육과 해외 의료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한 전문 의료인 배출을 목표로 한다. 우리 대학의 핵심학과인 간호학과는 제주 지역 최초의 간호 교육기관으로서 50년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학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문제 중심학습법 (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도입하여 독창적인 실무 중심 통합교육과정을 운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간호반을 운영하며 국제 경쟁력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호텔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4년제) - 국제경영학과, 관광경영과, 관광영어과, 관광중국어과, 관광일본어과, 호텔조리과, 레저스포츠과 (2년제) 글로벌 관광 시대를 맞아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특성화 교육으로 인프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제관광호텔학부는 이탈리아, 일본, 중국 해외 다양한 자매결연 대학과의 교류 및 해외 유학, 산업체 경력 이 풍부한 전공 분야 교수진 확보 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 방송영상학과, 지능형시스템공학과 (4년제) - 건축디자인과 (3년제) - 컴퓨터정보과, 컴퓨터멀티미디어과 (2년제) 스마트 시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디지털 융복합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보기술/건축학부는 유수의 산업체와 산업체 맞춤형 주문 인력 양성과 IT융합기술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보건학부	사회복지학부	마사학부
-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응급구조과, 방사선과, 보건행정과 (3년제)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교육 환경과 전문 보건 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현장 실무 중심 교육으로 실무와 인성을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보건학부는 국내 수준을 넘어 세계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국가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과 도내 및 수도권 대형 의료기관 간의 산학 network 구축 등과 외국어 능력 우수자의 해외연구 및 유학기회 제공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인 보건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 사회복지학과 (4년제) - 유아교육과 (3년제) - 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 (2년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에 실천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사회복지·유아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학부는 현장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 및 운영과 해외복지시설 연수 및 실습 과정 운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실습, 상담, 사례관리 실습을 통한 현장 맞춤형, 공공성을 갖춘 사회 서비스 맞춤형 인력을 창출한다.	- 마산업자원학과, 마사학과 (4년제) 대한민국 최고 시설과 교육 과정을 통해 국내 최고의 말산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마사학부는 전국에서 유일한 4년제 학사과정의 말산업 관련 학부이다. 제주도 내 생산 목장, 육성 목장, 승마장, 경마장 등에서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현장 중심형 인재양성을 하고 있다.
	예술학부	
	- 산업디자인학과 (4년제) - 음악과, 뷰티아트과 (2년제) 이론 및 실무 중심 교육으로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선도하는 글로벌 예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예술학부는 창조적 사고 중심의 '융합성 디자이너',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프로 뮤지션', 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뷰티 전문인' 양성을 통한 높은 전공 취업률을 달성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건학이념인 훈화보국(訓誨報國), 인술광시(仁術廣施)에 따라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에 은혜에 보답하고,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신입생 여러분과 재학 중인 한라대학생 여러분, 제주한라대학교와 함께 꿈을 이뤄보자.

<정기자 김소현>

2020년 JOB '오름' 비대면 취업 코칭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진로에 대해 알고싶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개강연기와 비대면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한라대생들을 위해 취·창업지원센터 Job Cafe에서는 「비대면 진로 및 취업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Job Cafe는 진로·취업 상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사인 취업지원관으로부터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는 취·창업지원센터이다. 예관동 1층 (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 상담 방법에 따라 상담에 적합한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다. 일대일 맞춤 서류 클리닉(이력서,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컨설팅, 취업준비계획수립, 입사 지원 전략 수립, 취업관련 유용한 정보제공, 취업처 알선까지, 한다미로 One-Stop 지원센터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교내 취업지원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대면 진로 및 취업상담 JOB 오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이력경력시스템을 활용한 예약 화상상담, 온라인 상담, 이메일 상담, 전화상담 등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상담 활용 꿀팁으로는 일대일 맞춤형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은 이메일 상담, 면접 지도(모의면접/면접 컨설팅)은 화상 상담, 취업준비계획 수립, 입사지원 전략 수립, 기타 취업 관련 궁금증 등은 SNS 상담, 유선상담을 추천한다. 상담신청 후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활용 동의가 이루어진 후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신청 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작성하면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클리닉은 지원서 제출일에 임박하지 않게 미리 신청해야 하고 화상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약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

* 예약 상담 : 매주 월요일, 수요일(오전 10시/11시, 오후 14시/15시), 1회 상담시간 40분 내외
* 수시 상담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진행, 전화(064-741-7529) 및 이메일(mihyema@chu.ac.kr)

STEP 1	STEP 2	STEP 3
학생이력경력시스템 (NETRO 시스템)을 통해 예약상담 신청	상담 활용	취업 및 진로상담
로그인 후 예약상담 클릭 > 예약 날짜/ 시간희망 취업 상담 내용 작성하여 신청	지정된 날짜/시간에 링크 전송 후 화상상담 진행 (feat. ZOOM)	나에게 꼭 맞는 취업 및 진로 상담받기
▲ 화상 상담		
STEP 1	STEP 2	STEP 3
학생이력경력시스템 (NETRO 시스템)을 통해 예약상담 신청	맞춤 온라인 클리닉 진행	클리닉 완료
로그인 후 온라인 상담 클릭 > 상담내용 작성 및 필요시 서류 첨부하여 신청	예약이 확인되면 취업지원관이 상세 내용 확인 1:1 첨삭지도	완료 후 추가 희망하는 경우 재등록 후 진행 가능
▲ 온라인 상담		

<정기자 강서경>

친구들이 한라춘추로 모여라~! 한라춘추 신문사를 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한라춘추에서 신문사 소개를 준비했다. 2학기 개강 시 새로운 기사를 모집하는 한라춘추에 지원을 통해 슬기로운 대학생활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라춘추를 움직이는 3개의 엔진

제주한라대학교의 신문사인 한라춘추의 소속기자들의 핵심 업무는 대학 신문을 발행하는 일이다. 한라춘추 신문은 글의 주제에 따라서 크게 대학면, 사회면, 문화면 3가지 부서로 나뉜다. 신문사를 움직이는 세개의 핵심 부서를 지금 만나보자.

먼저 신문의 1면을 담당하는 대학부는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교내의 여러가지 소식들을 전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매년 교내에서 주최하는 축제와 체육대회 같은 학교행사의 생생한 현장을 신문으로 옮겨 추억하는 일 또한 대학부가 책임지고 있다. 신문의 중심부를 담당하는 기획부는 독자들에게 사회 이슈와 시사 상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의 끝맺음은 문화부가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과 문화생활 소개를 통해 학우들에게 영화, 음악, 독서 등 다채로운 문화생활에 뛰어들고 싶게 만드는 주제들을 다룬다.

다음은 강미선 편집국장이 수습기자들의 부서 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인터뷰 내용이다.

Q. 수습기자들을 각각의 부서에 배치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수습기자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각각의 부서에서 기사를 쓰는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부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부서로 배정된다면 기자 활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지원한 부서로 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한 부서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원서에 쓴 내용을 토대로 부서지원이 명확하고 어떻게 활동할지 계획이 뚜렷한 지원자를 원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



▲ 2019학년도 발대식 사진

한라춘추는 학생자치기구로서 한라대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 무대에 올라 한라춘추 소개를 하며 4개의 학생자치기구와 함께 출범을 선포한다.

부스운영

한라춘추는 축제와 체육대회 동안 부스를 운영한다. 다양한 체험 거리와 이벤트를 기획하여 학우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더불어 신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 부스운영 사진

학우들을 위한 이벤트



▲ 이벤트 포스터 사진

한라춘추에서는 학우들이 낸 언론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색다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에는 학교에 나오지 못해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여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신문사 홍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한다.

한라춘추만의 혜택

제주한라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 생활 동안 기억에 남는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학우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기사에 집중해보자. 소통하는 신문, 유익한 신문, 바른 말을 하는 신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라춘추는 제주한라대학교의 언론기관으로서 월 1회 대학신문을 발행하여 교내소식을 전하고, 학생여론을 정확하고 중립성을 지켜 보도하는 학생자치기구이다. 따라서 한라춘추에 들어오는 학우분들이라면 학교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를 대표하여 기사를 써볼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신문 발행 뿐만 아니라 한라춘추에 속한 기자들은 학생 자치기구로서 축제, 체육대회 등 교내 행사 참여 기회를 통해 대학생활 동안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포트폴리오에 신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 취업 시 자소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좋은 스펙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라춘추에서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매월 기사비와 매학기 장학금이 지급되며 여러 학과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를 통해 타 학과 선후배와의 교류를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학 생활이 처음인 학우들, 대학 생활을 해본 학우들은 앞으로 여러 과제를 직면하며 자신이 글을 쓰는 데 있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쓰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낙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라춘추 기자들은 쓰고 싶은 소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기사를 쓴 뒤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새 신문을 쓰는 실력이 늘어나 있음을 느낄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 신문부에 들었던 경험이 있거나 글을 쓰는 데 재미를 느끼는 학우들, 혹은 기사를 쓰는 방법을 배우며 동시에 글을 쓰는 실력을 늘리고 싶은 학우들은 한라춘추에 지원해보는 것이 어떨까.

신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학교 소식 뿐만 아니라 기획, 문화 기사까지 매달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한라춘추 신문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한라춘추 신문은 제작회의→취재→기사작성→신문편집 및 교열→신문 인쇄→신문배포→평가회의로 이루어진다. 우선 대학부, 기획부, 문화부로 나뉜 부서에 맞는 주제를 정한 후에 기사의 개요를 짜는 제작 회의를 한 후 기사를 작성한다. 기사 작성이 끝나면 문장의 어순 및 오타 등을 수정하고 교열 과정을 거쳐 신문디자인을 구성한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발행된 신문을 학우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아침 8시 20분 신문배포가 시작된다. 신문 배포가 끝나면 더 나은 발행을 위해 모두 모여 각자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는 평가회의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월 1회 대학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신문구성부터 교내배포까지 우리 대학 신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의 정성으로 발행된 신문은 각 건물 가판대에 있으니 많은 관심 갖기를 바란다.



▲ 신문사 내부



▲ 발행되었던 신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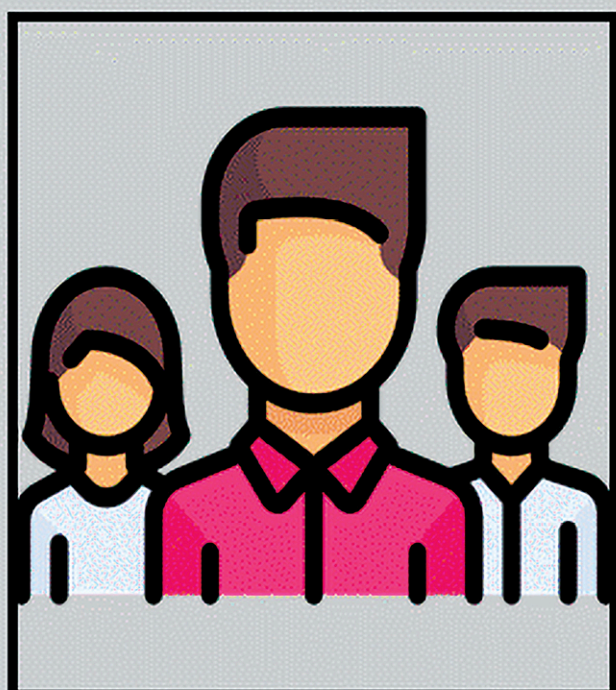
▲ 배치된 가판대

앞으로 한라춘추는 제주한라대학교를 대표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라학우 여러분들에게 진실만을 전할 것이며, 한라 학우 여러분들과 학교 사이의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약속할 것이며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직한 언론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 신문사가 어떤 기관이며, 무슨 활동을 하는지 많은 학우분들에게 달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학우분들의 관심과 독려는 한라춘추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한라춘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바란다. 한라춘추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학우들의 편에서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정기자 박승인, 정기자 조수빈, 정기자 양희정, 정기자 강미선>

한라춘추

<제 35기 수습 기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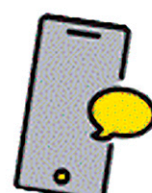
♥ 모집기간: 2학기 개강 후

♥ 지원방법:

편집장 010-4804-4150

이름/학과/학년

면접일자 추후공지 예정



혜택

- 매월 기사비 지급
- 매 학기 장학금 지급
- 포토폴리오 기재 가능 (스펙)
- 학생자치기구로 교내 · 외 행사 참여 가능
- 타과 선후배와의 교류

코로나 19가 바꾼 일상 하지만, **코로나 19** 다함께 이겨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학교의 개학연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실물 경제의 위기가 오는 등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을 주는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자.

파리 날리는 세계 관광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관광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각국에서 방역 강화 조치로 수천만 명을 격리하고, 패키지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내·외국인의 여행 수요가 위축되어 항공사, 패키지 여행사 등 관광업 일자리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GBTA(Global Business Travel Association)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이 업계에 월간 약 470억 달러의 손실을 줄 수 있다고 한다



▲ 이탈리아 로마의 스페인계단 관광지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 사진

마트에 휴지가 없어요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휴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휴지 사재기’의 요인은 ‘심리적 작용’이다. 실제 필요로 휴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스스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위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는 심리가 있다. 사람들은 ‘휴지 사재기’와 같은 행동으로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기만족감과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코로나를 하루빨리 잠재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견고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마하다 사람 잡는 코로나 19

코로나 19는 감염성이 높은 호흡계 질병이며, 주로 감염자의 분비물로 인해 전염된다. 손을 자주 씻으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제를 시중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19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철저한 자가격리 및 보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코로나 19의 증상과 대처 방법 즉 행동 수칙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코로나 19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37.5도 이상의 고열, 코막힘, 마른기침과 더불어 두통, 손 떨림, 근육통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시기상 일교차가 커 일반 감기 환자가 증가하는 때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코로나 19의 증상을 감기의 증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기침과 콧물 등 감기 증세가 보인다면 경각심을 가져 자가격리를 실천하고 더불어 1399(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등 전문적인 기관에 전화를 걸어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 의료 체계의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 19의 증상이나 감기의 증세가 보인다고 해서 절대 병원에 바로 발걸음 하면 안된다는 점과 자가격리를 할 때 가족과의 접촉 또한 일체 금지하고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점이다. 만약 전문적인 기관의 지시에 따라 선별 진료소에 방문한다면 평소처럼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말고 코로나 19의 증상이나 감기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출을 최소화하며 외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도록 하자.

코로나 19사태는 생활과 경제 등 우리를 둘러싸는 많은 분야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는 희망적인 부분 또한 함께 비춰주었다. 코로나 19전담 의료를 맡고 있는 의료진들, 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와 소상공인들, 정부의 지침사항을 준수하는 시민들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서로 연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온몸으로 맞이한 앞으로의 우리는 앞서 말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안락함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 19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정기자양희정, 정기자 조수빈, 정기자 강미정, 정기자 박승인>

대재앙을 맞이한 한국의 자세

코로나 19사태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어려움을 안겨줬지만, 한국인의 성숙한 국민성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지키며 최대한 외출을 자제했으며 공공장소에는 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손소독제가 배치되었다. 노력한 것은 국민들 개개인 뿐만이 아니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시를 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한 진단 키트를 도입했다. 또한 현재 ‘한국형 검사방법’이라 불리는 독특한 검사방법들을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검사방법을 만들어냈다. 검사 실시 초기에는 크게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한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은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7개국에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대처는 외국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대처방식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처와 시민의식이 전 세계인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준다.



▲ 좌) 드라이브 스루 검사, 우) M사에서 진행하는 의료진 응원 캠페인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

‘코로나 3법’이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뜻하며,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3가지의 법 일부가 포함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심증상자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의 법적 근거 등의 내용(감염병예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해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검역법)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할 수 있다(의료법)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변화시킨 생활 속 수칙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보편화 되었고 핸드폰 속에서 우리는 알람 경보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견잡을 수 없는 불씨같은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칙을 바꿨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화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 인천, 대전에서는 집단감염이 우려가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시 QR 코드를 통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자 기록하기 시범운영으로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제 집콕러들의 홈 스위트 홈

#방콕러 #집순이 #혼자놀이 #코로나19

최근 몇 개월간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하면서 감염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야외활동을 대신해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사용량이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집에만 머무른다는 뜻의 ‘집콕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으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SNS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료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놀이를 보며 흥미를 느끼고 유행시키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놀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 달고나 커피

400+a번 젓는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는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판매하던 ‘달고나 라떼’가 유명해지면서 생기기 시작했다. 집에서 쉽게 달고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공개되면서 SNS를 타고 퍼졌다. 만드는 방법은 인스턴트 커피 세 봉지, 설탕과 뜨거운 물 각각 세 스푼을 넣고 저으면 끝이다. 30분 정도 저으면 달고나 색의 거품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유 위에 올리면 완성이다. 이렇게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은 사람들은 “녹은 커피 아이스크림 맛이다”, “달콤한 커피 맛에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팔이 아프지만 재밌었다”는 반응이 있고, 기존의 달고나 커피를 응용하여 ‘초코 달고나 라떼’, ‘녹차 달고나 라떼’의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BINGO- 빙고!

최근 각종 SNS에는 빙고 게임이 유행이다. 빙고의 주제로는 학교, 집콕, MBTI 등 다양하다. 기존의 빙고는 상대방과 번갈아 가며 진행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빙고는 지식이나 경험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학교용 빙고를 한다면 ‘나는 학교 셔틀버스를 타본 적이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자신이 직접 체크하면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아도 혼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승패를 가리지 않으며 대부분 사람이 자신의 SNS에 점수를 공개해 알린다. 빙고 게임이 유행하며 빙고 판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생겨났고 더욱 다양한 주제의 빙고 게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콕살이 중 심심하다면 흥미 있는 주제로 빙고 게임에 참여해 채워져 가는 빙고 판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 오늘의 집순이 빙고 #				
달고나 커피 만들어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인스타그램에 하루 1번 이상 게시	오늘의 집순이 챌린지 참여	오늘의 집순이 챌린지 참여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집콕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 1개 이상 볼

▲ <오늘의 집> 빙고



▲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여봐요 ‘노동의 숲’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2020년 3월 20일 닌텐도 스위치로 전 세계 동시 발매된 동물의 숲 시리즈의 신작 게임이다. 낚시나 곤충 채집, 가드닝부터 집 꾸미기, 패션까지, 다양한 취미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다. 이 게임이 사랑받는 이유는 자극적인 장면이 없고 경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다른 플레이어의 섬으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게임 속 환경은 실제 플레이어가 있는 곳의 시간과 계절을 반영했다는 점이 인기 상승 이유 중 하나다. 또 직접 만든 커스텀 디자인으로 자신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연장되고 우울 감에 빠질 때 동물의 숲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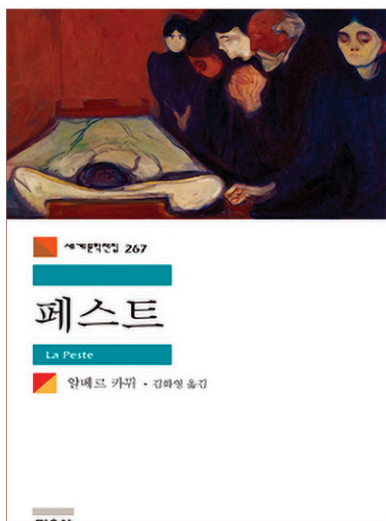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강제 집콕러가 된 사람들이 “혼자 놀기 경지에 다다랐다.”, “이젠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등 즐겁지만 좋지 않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남은 기간 생각지도 못하게 생긴 여유로운 시간을 자신만의 혼자 놀기 방법으로 윤택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정기자 오지남, 강규범>

지금 당신이 읽어보아야 할 책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계절이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19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당연시하고, 재택근무, 약속과 모임 취소 등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립’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지역사회에서는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캠페인 동참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걸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다시금 재조명되는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도서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 책 [페스트]

이 책의 배경은 프랑스령 알제리의 작은 도시 오랑이다. 처음엔 쥐 한 마리의 죽음, 이후엔 쥐들의 사체로 거리가 뒤덮일 만큼의 죽음이 발생하고, 이내 사람까지 길에서 픽픽 쓰러지게 되는 절망이 오랑을 덮치게 된다. 사지가 붓고, 마비와 함께 붉은 반점이 생기며 끝내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절망의 이름은 ‘페스트’이다. 혼란과 공포심으로 견잡을 수 없이 격해진 도시는 결국 폐쇄된다. 도시 전체가 감옥이 되어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오고 가지 못한 채, 평화롭던 전과 달리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속한 거짓 기사와 범죄, 이 시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오랑시는 불안과 우울로 물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이곳에서 신념을 가진 채 빛을 찾아 나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책 ‘페스트’에서 볼 수 있다.

극한 상황에 닥친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만큼 저자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서가 아닌가 싶다. 이 책의 줄거리와 현재 발생하는 문제가 서로 닮아있다. 또한, 전염병에 대하는 자세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고 희망, 절망, 외로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현재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운 만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대처 방식에 대해 더 생각해 보고 이런 상황일수록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찰을 하고 싶다면 책 ‘페스트’를 읽는 것을 추천한다.

우린 언제나 위협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서로 빛이 되어주며 함께 걸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시로부터 들려오는 환희의 함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유는 이 기쁨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페스트 中-

<정기자 성현아>

헌혈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아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다. 현재, 혈액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헌혈의 집은 코로나 19로 인해 헌혈자의 발길이 뚝 끊겨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혈액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만 명(12%) 이상 혈액 보유량이 줄어들었다. 최근 수도권의 지역 감염 확산, 코로나 19 감염 우려, 외출 자제, 개학 연기로 인한 헌혈인구의 43%를 차지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헌혈자가 줄어들에 따라 혈액 수급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혈액 보유량의 기준은 하루 평균 5일분 미만(관심), 3일분 미만(주의), 2일분 미만(경계), 1일분 미만(심각)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2.7일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에게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날짜가 3일도 안 된다는 것이다. 수혈의 어려움으로 수술에 차질을 미쳐, 일부 병원에서는 헌혈 전에 수혈 환자를 지정하는 지정 헌혈을 환자의 가족, 지인에게 유도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 텅 빈 혈액보관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시점에서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헌혈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헌혈은 바이러스에 안전하며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가 일회용 포장과 무균 처리가 되어 있고 한 번 쓰고 폐기 처분한다. 또한, 헌혈자를 일선에서 만나는 모든 헌혈의 집 간호사는 개인 손 위생과 자체 방역에 신경을 쓰고 채혈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헌혈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낮으므로 헌혈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걱정은 덜어두어도 된다. 충분히 안전이 보장된 헌혈을 통해 위기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수혈이 필요한 많은 환자에게 혈액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여방법

당일방문

- 제주 혈액원 : 제주시 오남로 45(제주시 보건소 옆 위치) T. 064-720-7845
- 신제주 센터 : 제주시 신광로 39 2층(신제주공영주차장 근처) T. 064-758-8101
- 한라 센터 : 제주시 중앙로 230(시청벽화 앞 중앙빌딩 6층) T. 064-757-8101



예약 헌혈제

예약을 통해 원하는 장소, 날짜, 시간에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헌혈의 집, 스마트 헌혈앱, 홈페이지(<http://bloodinfo.net>)

헌혈앱

헌혈 예약, 전자문진, 혈액정보, 헌혈 다이어리, 스마트 알림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헌혈'을 검색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헌혈을 실천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헌혈을 실천하여 코로나 19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돕는 것은 어떨까. 함께 마음을 모아 헌혈의 도움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빨간불이 켜져 있는 혈액 수급 상태를 파란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장 조윤성>

나도 몰랐던 '나'를 찾아서 #심심풀이 #성격테스트 #소름주의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진짜 나를 알아보는 심리테스트 중 요즘 SNS에서 무서운 정도로 정확하다며 MBTI 검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무료함을 가진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유행시키고 있는 MBTI 도대체 무엇일까?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하는 성격검사이다. 요즘 MBTI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쉽게 규정해줄 수 있어서이다. 심리검사 결과에 자신을 맞추고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얻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기로, 최근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유형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밝히기도 한다. 유+브나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콘텐츠로 자주 나오기도 하였으며, SNS에는 유형별 공부법, 연애 방식,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콘텐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한다. 검사는 각종 상황에 대한 질문에 자신만의 판단과 생각을 대답하고, 이를 근거로 성격유형 분석을 한다. 검사를 하길 원한다면 mbtitest.kr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MBTI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한다.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E)과 내향형(I)으로 나뉘는데, 외향형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내향형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선호하는 인식에 따라 감각형(S)과 직관형(N)으로 나뉘는데, 감각형은 오감에 의존하고 직관형은 영감 내지 육감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 판단 방식의 선호도에 따라 사고형(T)과 감정형(F)으로 나뉘는데, 사고형은 사실과 진심에 관심이 있고 감정형은 사람과 관계에 관심이 있는 특징이 있다. 선호하는 삶의 패턴에 따라 판단형(J)과 인식형(P)으로 나뉘는데, 판단형은 철저하고 인식형은 융통성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검사를 맹신하다 보면 결과로 나타난 성격 특성을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믿으려는 현상인 바넘 효과(Barnum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타고난 특성은 살면서 변하는 부분이 있고, 자신이 아는 나와 실제 자기 자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오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검사를 과몰입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의 하나로 즐기면 바람직하다.

다양한 사람의 성격을 고작 16가지로 규정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 타인과 나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성격을 확인해보고 본인을 성찰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기자 강규범>

▲ MBTI 성격유형

ISTJ 소금형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	ISFJ 권력형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	INFJ 예언자형 사람에 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	INTJ 과학자형 전체를 조망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ISTP 백과사전형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	ISFP 성인군자형 따뜻한 감성을 가진 겸손한 사람	INFP 잔다르크형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INTP 아이디어형 비평적인 관점을 가진 뛰어난 전략가
ESTP 활동가형 친구,운동,음식 등 다양함을 선호	ESFP 사교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성격	ENFP 스파크형 열정적으로 새 관계를 만드는 사람	ENTP 발명가형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
ESTJ 사업가형 사무적,실용적, 현실적인 스타일	ESFJ 친선도모형 친절,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	ENFJ 연변능숙형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	ENTJ 지도자형 비전을 갖고 타인을 활력적으로 인도